

# 여름방학은 신비한 과학의 세계로 '풍덩'

# CULTURE

2025년 8월 1일 금요일

## 국립광주과학관, '뇌과학특별전'·물과학체험장 등 체험·물놀이 행사 등 다채...광복 80주년 특별 행사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무더위를 피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먼저 지난 24일 개막한 뇌과학 특별전 '신기한 뇌 세상'은 뇌의 구조에서부터 일상 속 뇌의 활용, 미래 기술과의 융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며 뇌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고 '인체의 소우주-뇌'의 비밀을 파헤치는 전시다.

풍성한 볼거리 뿐만 아니라 체험형으로 구성. 남녀노소 누구나 오감으로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는 9월 21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본관 1층 기획전실에서 만날 수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도심 속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물과학체험장'도 지난 2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야외 분수대 광장에서 운영 중이다. 유아, 청소년,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물총과 워터 발리볼, 물놀이 에어바운스, 울인원 슬라이드 3종, 물총 놀이장, 자석 낚시터 등 무더운 여름을 가족과 함께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 행사가 마련돼 있다.

특히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그 속에 담긴 과학 원리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자연스레 과학지식을 쌓을 수 있다.



우주여행을 주제로 관람객에게 우주의 신비로움과 미래 우주탐사의 꿈을 전하는 '돛 영화제'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1층 천체투영관(플라네타리움, Planetarium)에서 진행된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반구형 돔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주인'(Astronaut)을 비롯해, '위대한 태양계 탐험' 등 총 6편의 작품이 상영되며, 실감나는 별자리 해설과 더불어 다양한 돛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주말에는 매달 새로운 주제로 운영되는 과학문화 행사도 진행된다. 8월에는 매주 일요일 신기한 마술과 함께하는 과학실험 뮤지컬 '매지컬 사이언스 스텝'이 2회 국립광주과학관 1층 상상홀에서 운영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여러 주제의 전문가 강연도

대거 준비된다. 20일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국립광주과학관이 함께하는 '과학스쿨', 22일과 29일 '과학터치', 30일 '제39회 필사인턴스 강연', 9월 3일 '수요일엔 바다톡톡', 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가에게 듣는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강연'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 교육도 진행된다. 7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건강과 자연생태를 탐구하며 환경보호와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는 '초록별 탐험대'와 수학을 놓아치려 체험해보는 '수학탐험대' 교육이 지난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주 동안 총 15개의 주제로 운영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80주년, 과학으로 밝히는 대한민국의 빛'을 주제로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일부터 31일까지 독립기념관의 협조를 받아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선보이며, AI를 이용해 독립운동가 사진을 현대배경으로 복원한 'AI로 만나는 독립운동가'도 15~17일 광복절 연휴에 전시된다.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상설전시관 무료개관과 함께 '페이스페인팅', '신기한 뇌 세상' 특별전 관람객 대상 태극기 키링 증정 등의 행사도 마련된다. 온라인에서도 여름방학 맞이 다채로운 이벤트가 이뤄진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 15년 만에 개인전...소나무로 시간의 서정 표현

### 서양화가 김선중 제4회 개인전 내일부터 강진아트홀서 30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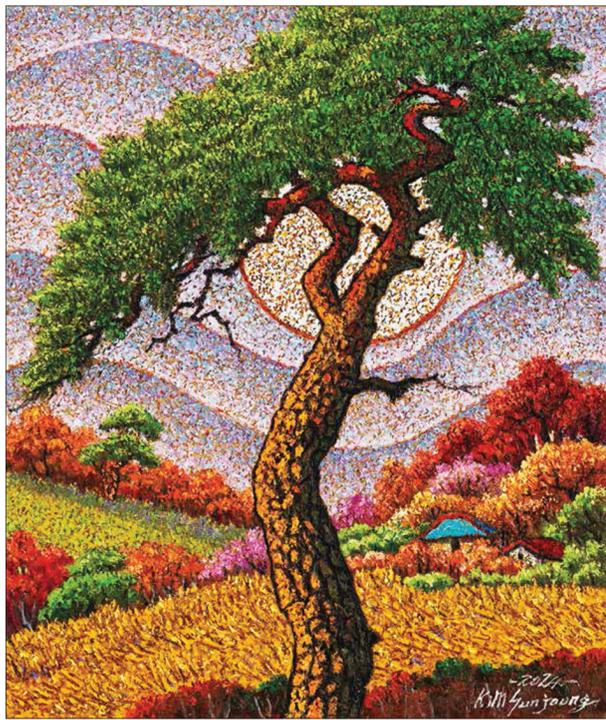
소나무에 전착해온 서양화가 김선중씨가 15년 만에 네번째 개인전을 연다. 전시는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솔향'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출품작은 신·구작 총 30여점.



작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우연히 방문한 화실에서 그림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발견한 이후 서양화를 전공하며 현재의 기법을 정립했고, 물감을 두텁게 쌓아 올려 지나간 시간의 서정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갖췄다.

이어 1997년 남부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 뒤 배꽃과 복숭아꽃, 개나리, 시골 집과 같은 사라져가는 풍경부터 탈춤, 사물놀이, 승무, 살풀이 등 민족의 숨까지 바쁜 현대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민족적 정서를 담담히 되살리고자 했다.

그러다 소나무가 그에게 찾아왔다. 소나무를 위한 일념으로 낙산사 등 강원도를 수시로 드나들었을 정도로 열정을 발휘했다. 금강산을 중심으로 운해에 잠긴 산하를 담은 200호 크기의 작품 '우리 땅'을 2년에 걸쳐 제작하는 등 한국의 소나무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과 자연의 무한함을 표현하는데 깊이 전착하고 있다. 작가는 붓과 나이프로 물감을 두텁게 쌓아올리는 마티에르 기법으로 소나무를 표현하고 있다. 작품은 항상 정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시작해 빛을 향해 색을 점진적으로 쌓아 올린다. 평면 회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부조에 가깝게 대상들이 반사해내는 수많은 층의 색을 새겨 나간다. 솔잎 사이를 투과하는 따뜻한 태양 빛이



'낮에 나온 운달'

소나무를 비추듯 구부러진 몸통이 그리는 곡선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나무껍질의 갈라진 틈을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김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2020년 5월 소나무를 연작으로 개인전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그러나 그 시간을 오히려 작품에 더욱 깊이 몰두할 기회로 삼았다"면서 "바쁜 일상과 치열한 삶 속에서 잠시 벗어나 소나무 숲길을 거닐듯 작품을 감상하며 작은 위로와 휴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중 작가는 조선대 미술과를 졸업, 개인전 3회와 단체전 100여회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과 전남미술대전 우수상, 광주미술대전 및 무등미술대전 입선 등 다수 입상했다. 한국미협 및 광주미협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전남미술대전 초대작가를 맡고 있다. 광산 삼도 금북중 교사 등 교직에서 34년간 재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ACC재단 '남극에서 살아남기' 공연

### 23~24일 총 3회 조전당 어린이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2025 ACC 렛츠플레이' 두 번째 작품으로 어린이 무용공연 '남극에서 살아남기'를 오는 23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4일 오후 2시 등 총 3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남극에서 살아남기'는 오염된 자연을 정화하기

위한 댄스들의 여정을 다룬 이야기다. 이 작품은 점점 사라져가는 빙하로 인해 알을 지킬 수 없게 된 펭귄들이 알을 공중에 띄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독특한 발상을 담았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 창의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생명의 모습을 무용의 언어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번 공연은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어린이 관객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2025 ACC 어린이극장 공동기획 렛츠 플레이'는 국내 및 지역 예술단체와의 상생을 통해 극장과 어린이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당재단의 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종로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총 5편을 선정했다. 지난 4월 인형극 '별길따라 별별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전통음악극 '청비와 쓰담 특공대', 12월 음악극 '셋!'과 비언어 오브제극 '중심, 빛깔 있는 꿈' 등을 선보인다. 입장료는 1만5000원.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 '예술 경험'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 확산

### 광주문화재단, 교원 문화예술연수 5~6일 전통문화관 입석당서 열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연수 및 아카데미 서로배움'의 하나로 교원문화예술교육 직무연수 '아이엠 쌤'을 5일부터 6일까지 전통문화관 입석당에서 진행한다.

2019년부터 이어져온 '아이엠 쌤'은 교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물을 창작함으로써, 교과와 문화예술 장르를 융합해 문화예술교육의 성장을 이끄는 연수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예술적 체험을 통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발견하고, 교원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 주제는 '나를 담은 문화예술 이야기'로, 광주지역 유·초·중등 교원 30여명이 참여해 체험·성찰·협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교장, 교감, 교사, 원장, 교육연구사 등 다양한 직군의 교원이 함께해 현장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며, 모집 하루 만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았



다. 본 연수는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이 협력해 추진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신희홍 테이올직업교육연구소 대표의 '몸과 소리를 통한 감정 표현', 김옥진 마음놀이 대표의 '색채와 상징을 활용한 자아 탐색', 김현은 문화예술교육 기획자의 '문화예술교육 사례 공유', 정명동 한국회화의 '전통 부채에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담아내는 예술적 소통'으로 구성된다. 자연 친화적 공간인 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정서적 몰입과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 명인의 삶·소리... '남도소리' 조공례를 부른다

### 남도국악원, 토요일 '국악이 좋다'

### 2일 '진도 삼례 시리즈 2' 진악당서

국립남도국악원은 2025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무대로 진도 삼례 시리즈 1 '조공례를 부른다'를 2일 오후 3시에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이 '진도 삼례'라 일컫는 조공례 재현을 위해 기획됐다. 그중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남도소리의 명인 조공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제자인 김용우와 딸 박동매 국가무형유산 남도들노래 예능보유자,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공연의 1부 '젊은 소리꾼 김용우'는 조공례 명인의 살아생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영상으로 시작해 소리꾼 김용우와 그의 밴드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강강술래'부터 '시냇물노래', '대강거리', '남도들노래' 중 '절로소리'까지 만나볼 수 있다.

이어지는 2부 무대는 공연의 메인 제목인 '조공례를 부른다'로, 박동매와 남도들노래보존회,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허정승 김원기 이진호 그리고 김용우가 함께 '남도들노래', '오곡타령', '진도 아리랑'을 들려준다.



김용우 소리꾼 박동매 예능보유자

조공례 명인은 삶이 소리이자, 소리가 살아있던 명인으로, 평생 우리 소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의 제자 김용우는 국가무형유산 기사 이수자로, 'KBS 국악대상 대상'과 '제6회 서울문화재단 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동매는 어머니의 뒤를 이은 국가무형유산 남도들노래 예능보유자로,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남도들노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입장료는 무료.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